

한형조

무문관 개방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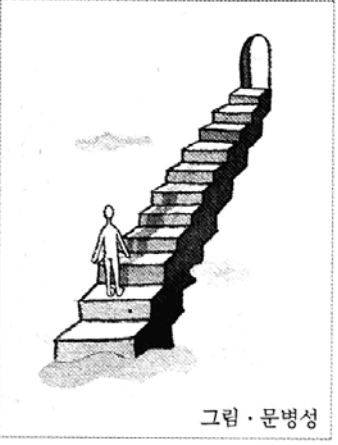
건봉의 의길

“건봉화상에게 어느 승려가 물었다. ‘시방의 제불은 모두 열반의 문으로 하셨는데, 대체 그 길은 어디 있습니까?’ 건봉이 지팡이를 들어 허공에 희한 줄을 꿸고 가로되, ‘여기 있다.’ 나중에 그 승려는 운문에게 자세한 해설을 부탁했다. 운문은 부채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부채가 뒤어올라 삼십삼천(三十三天)에 이르러, 제석(帝釋)의 쿡구멍을 꿸었다. 동해의 잉어를 찢더니 동이를 기을인 듯 큰 비가 쏟아졌다.’”

“나 해가 말한다. ‘한 사람은 깊고 깊은 바다 속에서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고, 한 사람은 높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허연 파도를 일으킨다. 정(定)을 지키고 행(行)을 놓아, 각각 한 손을 내서 증승(宗乘)을 붙들어 세웠다. 흡사 두마리 말이 맞붙은 것같이 세상은 이를 간파한 사람이 없으리라. 바른 눈으로 보전대 두 늪은이 길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송하여 가로되, ‘길은 올레길도 전에 이미 달아났고, 허를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말해버렸네. 기미가 이르는 곳을 놓치지 않는다 해도, 그 위에 놓린 구멍 하나 있음을 알아 할 것이야.’”

乾乾一軌, 因循問, 十方薄伽梵, 一路涅槃門, 末審路頭在甚處, 峯拈起杖,



“내 손에 권 부채가 날아올라 삼십삼천에 가부좌한 제석의 쿡구멍을 찢고, 그것도 모자라 동해의 잉어를 한방 먹이니 하늘에서 동이가 와서 와장창 쏟아진다.”

이것은 가히 만화적 상상력이다. 선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문다. 목표는 단 하나, 현실의 견고한 성체를 부수고 흔들기 위함이다. <금강경>은 말한다. ‘수부티야, 여래께서는 모든 존재가 존재가 아니라 하셨다. 그렇기에 존재라 불리운다.’ 모든 것은 이슬같이 섬광같은 것, 혹은 어지럼증 속에 떠도는 허공꽃같은 것. 제상(諸相)은 찰나적이면서 또한 그렇기에 스스로의 존재성, 즉 자성(自性)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實際)가 아닌 환상, 혹은 마야의 세계이다.

우리는 욕망과 유용성의 그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세계를 인식한다. 불교는 이 뿌리깊은 습성을 타파해야 생명의 무의미와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니르바나에 이르는 관건은 현실의 집착력과 결정력을 줄이는 일이다. 그 점에서 소승의 구상관(九想觀)과 아비달마 분석, 대승의 변증논리와 유가행, 그리고 밀교의 충격과 선의 화두가 노리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동일하다.

팔정도(八正道)는 삼독(三毒) 치료하는 약

우리는 흔히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인 팔정도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그것은 팔정도가 일상에 표현하기는 어려우면서도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행하기는 어렵고 이해하기는 쉽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별장계 핀 숯을 손에 쥐고 불경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을 놓아버려야 한다. 물론 “아니오, 못 놓겠어요. 그저 식기만 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수행의 장애 ⑧

인내심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놓으면 된다. 우리의 내면적인 집착을 놓아버리면 된다. 우리는 알을 낳은 어미새와 같다. 알을 품어서 부화시킬 책임이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들은 썩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물을 바로 보고 수행정진하고 마지막으로 놓아버리면 된다.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았었는데 의사와 모든 처방약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포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나의 가족이니 나의 수행

적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7

이니 하는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와같은 자기중심적 견해는 또 다른 고(苦)의 원인이 될 것이다.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든 홀로 살든 행복을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지 법(法), 팔정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술에 물과 쌀을

게 된다. 우리는 수행이 어려워지면 ‘계를 러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 등 우리의 의지력은 제쳐놓고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뿐이다.

자기중심 견해(執見)의 원인 행복찾겠다 생각 말고 살림살이를 바로 보자

부어넣는 것만으로 즉시 밥을 얻을 수는 없다. 불을 지피고 물을 끓게 한 다음 충분히 뜸이 들도록 해야 한다. 지혜를 갖추면 문제점들은 자기 지은 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살림살이를 바르게 보게 되면 업장을 알게 되고 인과를 배우게 되어 점차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

게 된다. 우리는 수행이 어려워지면 ‘계를 러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 등 우리의 의지력은 제쳐놓고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뿐이다.

우리는 세간을 살면서 수행을 하지만 팔정도에 기본 계율을 깨끗이 준수하고 노력해야 한다. 몸가짐과 말을 단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실되게 노력하고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한두번 시도하여 경운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는데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방황하게 놔두어서는 안된다. 마음은 물론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물건이다. 말(馬)을 길들일 때 고

집이 정말 세면 얼마동안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다가 올 것이다. 우리인생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올바른 노력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정도를 수행하려면 세간에서 살되 그위에 머물러야 한다. 오계를 위시하여 계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팔정도는 마음에서 욕망을 씻고 삼독심의 원인을 제거해준다. 따라서 명상수행을 정진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게 먹고 수행이 잘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팔정도의 길을 꾸준히 걷는 것이다. 의욕이 일어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각 역시 무상한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아산차 스님이 수행하시던 윗빠빠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스님의 신통력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아산차 스님은 웃으며 “세상에서 오직 한가지 진짜 신통이 있으니, 법의 신통력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을 해탈하게 하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가르침이야말로 신통 그 자체다. 다른 신통은 모두 불응의 속임수일 뿐이다. 그런 신통은 우리가 생로병사와 맺고있는 관계 거기로부터의 해탈이라는 인생의 진짜 경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정신팔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공극의 길 내속에 있다

욕망·습성타파 윤회고통 벗어나야 열반에

劃一劃云, 在者裏, 後僧請益雲門, 門拈起獅子云, 獅子穿鼻, 上三十三天, 築香帝釋鼻孔, 東海鯉魚打一棒, 雨以盈傾, 無門曰, 一人向深深海底行, 土塲舉, 一人於高高山頂立, 白浪滔天, 把定放行, 各出一隻手, 扶雲宗飛, 大似兩個童子相牽著, 世上應無直底人, 正觀觀來, 二大老總未識路頭在, 雲曰, 未學時先已到, 未動舌時先說了, 直曉著善在後先, 更須知有向上竅.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불교의 문은 열반으로 통한다. 여래와 부처, 보살과 나한이 모두 그 길을 따라 갔다. 어느 승려가 그 길이 알고 싶었나 보다. 조동종의 법사 건봉은 그러나 그 길에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그렸을 뿐이다.

허공에 흰 길이 있다. 허공을 밟로 밟을 수 없으니 결국 길은 없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무문(無門)이다. 문은 없다! 입구도 통로도 없는 길로 등을 떠밀어 야속한 건봉을 뒤로 하고, 그 승려는 이번에는 운문을 찾아갔다. “건봉스님이 그려보인 허공의 길은 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운문이 누구인가. 거룩하신 석가세존을 한 달음에 때려잡아 천하의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그 과격한 아난가. 그는 다행히 풍뎉이를 잡고 이런 등문서답을 던져주었다.

요컨대 불교에 발을 디디면 세상이 달라보인다. 혹은 세상이 달리 보여야 불교에 입문할 수 있다. 청원유신의 표현을 빌리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이다. 그곳으로 안내하기 위해 불교는 다양한 방법적 장치를 개발해 왔다. 때로는 삶의 역경고 협오스런 측면의 명상을 통해, 때로는 자아의 혼란을 지우기 위한 분석과 변증을 통해 그 ‘낯설음’을 각인시키려 했다. 선은 이제까지 살았듯이 역설과 모순, 반어와 상징을 더 선호한다.

그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해계의 다의성(多義性)은 가히 압권이다. “깊은 바다 속에서 흙을 일어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늘에 닿는 허연 파도를 일으킨다.” 뒷모르고 이 구절에 취해 머침을 풍동했던 기억이 여지도 새롭다. 그러나 선은 문학이 아니다. 글에 취하면 본래의 뜻을 잃는다. 궁극으로 난 길은 어디 있는가. 건봉과 운문의 기행(?)은 결국 밖으로 난 길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회광반조, 길은 결국 내 속에 있다. 해계는 그것을 ‘위로 난 구멍 하나’라고 했다. 무어라 불라도 상관없다. 대체 어떻게 나와 대면할 수 있는가. 곤혹스럽게 등장한 밀은 늘 어둡고 안경은 대상 속에 있지 않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81

마음과 논리학

김용운

불교 교단도 다른 일반 사회와 다름없이 인간이 만든 조직이다. 인간이 만든 조직에는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있다.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서로의 오해를 없애으로써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것으로써 처음 조직을 형성했을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언어에서 한계를 인식한 불교는 언어보다는 마음을 중시하며, 그 한계를 초월할 것을 수양의 목표로 삼아 왔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 사이의 아름다운 설화 ‘염화미소(拈華微笑)’는 이에 매우 상징적이다.

부처님이 연꽃을 따서 제자들에게 어떤 뜻을 전하려 했을 때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다만 가섭만이 그 뜻을 헤아리고 미소했다는 고사이다(佛說梵天問決疑經).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오직 가섭 혼자만이 그 뜻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그만큼 법언에게는 이심전심의 의사 전달이 쉬운 일이 아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6

남을 시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회합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성으로서의 말씀(logos, 이성)을 중시했다. 그들의 전형적인 학문은 대화·토론의 방법에서 비롯되었으며, 학문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논리학’이다.

특히 유클리드기하학은 대화 도중 애매한 것이 발견되면 그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를 납득시키거나 또는 내 자신이 납득하기 위해 대화

무리 간단한 명제일지라도 반드시 논증되어야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령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는 명제는 심지어 개조차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간단한 명제조차도 공리와 술어, 그리고 일정한 논리법칙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논증(논리에 의한 증명)이란 ‘정의와 공리’에서 비롯되는 논리의 전개 체계의 결과를 얻는 과정이다. 그

논리에 승복하는 일 민주주의의 출발

조계종 분류는 비논리적 역사의業

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출발했으며 논증기하학은 이 방법을 체계화했다. 즉 값이 애매한 점을 의심하는 데 대하여 의문시하는 술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한 술어의 대화가 원활히 성립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약속)을 만들고 서로의 대화에서 야기되는 의문점을 배제시켜 가는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단순한 도형의 학문이 아니며 오히려 도형을 대상을 삼는 논증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즉 ‘정의’에 의해서 술어의 의미를 확정하고 ‘공리’로서 추론의 기초를 확립한다. 공리·술어·논리법칙이 공통의 토대 기반인 것이다. 아

무리 간단한 명제일지라도 반드시 논증되어야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령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는 명제는 심지어 개조차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간단한 명제조차도 공리와 술어, 그리고 일정한 논리법칙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논증(논리에 의한 증명)이란 ‘정의와 공리’에서 비롯되는 논리의 전개 체계의 결과를 얻는 과정이다. 그

는 이러한 갈등을 논리로써 해소시킬 것을 시도해 왔다.

한편 수만 개의 작은 혈연 중심의 마을과 도시라고는 서술 하나뿐인 사회구조를 오랫동안 체험한 한국인들은 논리적 의식을 기를 시기가 없었다. 그 보다는 ‘천만 빛도 말 한마디로 길고’ ‘마음만 맞으면 천하도 반분’ 하는 정(情)의 세계를 믿어 왔다. 정은 감정이며 이성과는 반대이다.

그런 체험들이 ‘한국인의 조직 운영을 비이성적으로 흐르게 만든 것’이며, 이번 불교계의 분류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새삼 비논리적인 것 같은 역사의 업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실감하며, 원효대사가 화쟁(和諍)사상을 내세우게 된 계기 역시 당시 불교계에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말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데 지금 조계사에는 그 손마져 없는 미망의 상태에 있는 속물들이 평소 마음의 ‘수행·수양’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들을 보면서 단순히 감도 옳고 옳도 옳다는 양시·양비에서 벗어나, 말씀을 초월하는 절대 경지가 있음을 알리고 특히 불자의 이상이자 목표가 바로 그 경지임을 제시한 원효의 화쟁사상을 떠올리게 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경정법신비로자나불·원만보신노사나불·전백역화신석가모니불·구품도사아미타불·당래화생미륵존불·시방삼세일체제불·시방삼세일체존범·대지문수사리보살·대행보현보살·대비관세음보살·대일본존지장보살·제존보살마하살·마하반야바라밀

원불 부처님을 위한 후불탱화

금·목불·동·옥·순금천·석재

◎ 감수 : 후불탱화 조성 문화재 기능자·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단정장 이수자·지정 문화재 도급 기능자 제 1741호·박정민외 다수인
◎ 진품 만다라 탱화 조성작가스님 : DODAK LAMA, SANGE LAMA, PURUPA LAMA, DHL 외 다수인



천불전의 원불 부처님 한분 마다 모실 수 있는 후불탱화 및 후불광배가 국내외의 중요 무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 불모들에 의해 조성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부처님 불안시 함께 모셔져온 후불탱화를 각 개인 불자의 이름으로, 천불전의 부처님 한분 마다 함께 봉안하여 침체된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켜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스님들께서 불사 추진하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조성비를 최소화하여 기존 천불전 부처님 한 분 조성비의 10분의 1정도로 동참토록 조성공급을 일원화 했습니다. 사찰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100여종 이상이 각종 광배 및 후불탱화와, 성지에서 모셔온 1000여점의 만다라 탱화도 상설 전시중이니 직접 방문이나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특별 주문제작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문화 기획사업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37-1 한라빌딩 101호
전화 : (02)732-6373/4